

# 잘 살려면? 죽어라... '임종체험' 인기

## 통도사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 수련회서 '거듭나기' 신설

"자,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스님의 저승사자와 같은 목소리에 수의를 입은 대학생들이 차례로 관에 몸을 누였다. 관 속에서 가진 10분 간의 명상, 기쁘고 긴 흐느낌과 숨소리, 몇몇의 흐느낌조차 이 무거운 짐뭉치를 가르진 못했다. 산사에서 미리 만나본 죽음의 순간은 극도의 공포였을까? 아니면 기분 좋은 꿈결처럼 편안했을까?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감사하는 삶 행복한 만남'을 주제로 한 제30회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산문을 활짝 열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나뉜 총 7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수련대회에는 적멸보궁에서 임하는 템플스테이 외에도 '거듭나기-임종체험'이 신설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7월 17일 오후 8시 갑갑한 법당에 제2차 대학생 수련회에 참가한 60여 명의 대학생이 모였다. 이번 시간은 지난 삶을 정리하는 '남기는 글'을 쓰고, 임종체험 후 새 삶을 향한 발원문을 다시금 써보는 이른바 '거듭나기'다.

먼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7월 17일 통도사 대학생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종체험을 하고 있다.

일 5가지와 잘못한 일 5가지, 그리고 남기는 말 등을 종이 한 장에 차분히 써내려간다. 죽는 소리에 맞춰 수의를 입고, 입관해 관 덮개를 덮고 못을 박고 흠을 뿌린다. 실제와 같게 듯 두드리고 흠이 덮이듯 쓰다듬는다. 관에서 나온 후 새 삶을 향한 발원문을 작성하면 비로소 '거듭나기-임종체험'은 끝이 난다.

관에서 나오며 눈시울을 붉힌 허아련(22)씨는 "훗날 진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며,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유난히 밝은 미소로 임종체험에 임한 정지선(25)씨는 "처음 경험해보는 낯선 임종체험이 두려웠지만 막상 관에 누워보니 의외로 아늑하고 향나무 냄새가 편안해 죽음이 마냥 무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재훈(31)씨도 "죽음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줄 알았으니 진짜 죽을 순간에도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한 순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듭나기 임종체험을 진행하는 포교국장 정숙 스님은 "우리는 '죽음'이란 것을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 매순간을 절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거듭나기'에서 바로 이 삶에 대한 절실함을 깨달아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루하루를 더욱 귀하게 살아나갈지 바란다"고 말했다. (055)384-7085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울산 최초 유치원, 수행공간으로

## 해남사 동국유치원 '해남사 수행관' 리모델링 완공

울산 최초의 유치원인 해남사(주지 만초) 부설 동국유치원이, 해남사 신도들의 독립된 수행공간인 '해남사 수행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 울산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유치원으로 한때 울산 최고의 명문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최근 저층상과 경기침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 휴원하고 있던 중 신도들을 위한 수행전문도량으로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7월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점안식을 갖고, 10시 개관공공, 이어 11시부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및 울산시 각 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관식은 주지 만초 스님의 인사 및 경과보고, 내빈 축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축하법문, 개관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주지 만초 스님은 "73년 전 통도사를 세운 통도사의 주지셨던 구하 스님은 산중에 머물러 세상과 떨어진 불교를 세상 속에서 함께 하고자 울산의 중심에 '울산포교당 해남사'를 세우신 만큼, 앞아서 기다리지 않고 불자들을 달



해남사는 7월 24일 해남사 수행관 개관식을 봉행했다.

러나가 맞이하는 행복한 수행정진의 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만초 스님이 해남사의 주지 소임을 맡은지 불과 1년 3개월 가량이 흘렀지만, 그간 변화발전한 도량을 보면서 매우 기쁘다"며 "울산 최고의 유아교육 명문기관에서, 이제는 신도들의 수행과 포교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약 4개월에 걸쳐 완공된 '해남사 수행관' 1층에는 수행상당 및 만년의 장, 차담을 나누는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관음당'과 기도용 보조법당과 각 수행단체의 소그룹 법회에 적합한 '아미타

당', 그리고 편집실 및 각 수행단체의 사무실이 개설됐다. 2층에는 한학당 연수실인 '문수당', 불교신학교의 수업이 진행될 '보현당'이 들어섰다. 3층에는 다목적 수행관으로 참선 및 기도법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기도전용 '비로담'이 새롭게 마련됐다.

앞으로 '해남사 수행관'에서는 신도들의 심신 수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가 개설된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꽃꽃이반',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8시 30분~10시 '요기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다도반'이 운영된다. 또 참가자들의 자율수행으로 진행되는 '참선수행반'도 새롭게 선보인다. 박지원 기자

# 달맞이언덕 산책하며 '가족·나·돈·학력' 명상

## 대광명사, 문탠로드 테마명상법회 개최

세계적인 휴양지 해운대의 명소, 달맞이언덕에서 산책을 하며 이뤄지는 '테마명상법회'가 새로운 수행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해운대 중동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설치된 문탠로드에서 주지 목종 스님과 함께 '테마명상법회'를 개최한다.

'가족·나·돈·학력' 등 현대인이 주로 고민하는 것을 테마로 정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뉜 명상포인트에서 보다 심화된 테마 소주제로 들어가 깊이 있는 명상으로 자기성찰을 이끌어낸다.

문탠로드 입구 표지판에 걸려있는 주지스님으로부터 오늘의 명상 테마를 듣고 약 10분여 걸기 명상에 심취하다보면 탁트인 동해바다를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달빛가온길'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첫 번째 명상



매월 둘째 주 일요일 해운대 달맞이언덕 문탠로드를 걸으며 테마명상법회를 봉행하는 목종 스님과 불자들.

테마에 관해 걸어오며 생각한 것들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두 번째 테마를 받는다. 이어 만나게 되는 흠내음 짙은 숲속 '달빛바루길'과 '달맞이산책길'에서도 역시 각자의 감상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혀오던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 된다.

기존의 명상법이나 법회의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산책이라는 익

숙한 방법과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는 테마를 설정해 불자는 물론 타종교인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다.

스님은 "흔히 나를 속박하던 것들로부터의 일탈이라고 하면 몸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이 벗어나야 순수한 일탈"이라며 "산책을 통한 테마명상법회에서 몸과 마음에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해결할지 바란다"고 말했다. (051)742-7610

박지원 기자

# 종립학교 교직원 심성 가꾸기

## 금정중 범어사서 특강·참선 등 수련대회

금정중학교(교장 현익재)는 7월 15일 설립본사인 범어사(주지 정예) 휴휴정사에서 제37회 교직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종립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갖춰야할 불자적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대회에는 총 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했다. 임제식은 전 중앙승가대학교수

며 법인이사인 흥선 스님의 법문과 범어사 주지 정예 스님의 인사, 범어사 승가대학 강주 승학 스님의 '참다운 불자의 삶'을 주제로 한 특강

등이 이어졌다. 수련대회에는 현익재 교장과 이석연 교법사의 특강, 범어사 연구국장 도명 스님의 참선, 108대좌회 등 내실있고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지원 기자

# 환우돕기 일일차집

## 생명나눔부산 창립3주년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창립 3주년을 맞아 '난치병 환우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7월 23일 영광문화예술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오후 2시 가수 이진석의 라이브공연과 국악인 이금옥의 가야금 연주가 있었으며, 이어 오후 7시 현악4중주 등의 특별공연이 함께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이번 마련된 수익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김지민(13) 어린이 등 난치병 환우들의 치료비 마련에 전액 후원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오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자발 밑에서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순님의 마음을 흔들여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순님이 첫순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순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로 제작해 풀이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 자동차용호신불

##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 호신불규격정경3.5cm,세로4.5cm



###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 안생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랑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른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미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풀이가 있다. 고급게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영험의 구슬



# 보궁여의주

##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극하여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 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전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 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웅공에도 있고 여의륜관 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

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에 의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복으로 풀이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